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온라인 화상을 통해 자율주행차 센서 기술개발 업체인 ㈜인포웍스(대표 박현주)와 인공지능 기반 미래 자율주행차 생산과 연구환경 기반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인포웍스, 연구센터 짓는다

광주시와 업무협약...자율주행차 정책·기술 자문

지능형 모빌리티 센서와 솔루션 개발·공급 업체인 인포웍스가 광주에 연구센터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광주시와 인포웍스는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화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에 연구센터와 생산공장 설립 추진 등 광주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협력기로 했다. 광주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포웍스의 양해를 구해 화상 협약식을 진행했다.

인포웍스는 지능형 모빌리티 센서와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올해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경망(NPU) 기반 AI 엣지 컴퓨터 개발보드 ‘REX Basic’을 출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는 등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광주시가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인포웍스는 연구센터 설립 등 광주의 인공지능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시 AI 기반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술 관련 자문 수행 ▲연구센터·생산공장 광주 이전·설립 ▲미래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 추진 ▲AI·미래 자동차산업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 취업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인포웍스 박현주 대표이사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매력을 느껴 연구센터 개소 등이 포함된 협약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인포

웍스가 갖고 있는 기술역량과 광주시가 구축할 AI인프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보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인포웍스와 사전 미팅을 통해 광주 여건을 설명한 바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사업의 한 축인 인포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빌리티 센서기술과 솔루션 노하우가 미래 자율주행차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해 광주를 찾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사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포웍스는 자동차·로봇 등의 자율주행에 위한 비전 센서시스템 설계·제작·공급 능력 보유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괄 수주가 가능한 기술혁신형 기업이다. 또 라이다(LiDAR),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모듈, 비전센서모듈, 웨어러블 스마트헬멧 등을 개발·출시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촉망받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황애란 기자

정기 브리핑



박지원 “3년내 1,000만 목포관광시대 달성”

민생당 박지원(목포) 의원은 24일 “대규모 해양리조트·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며 “3년 내 1,000만 목포관광시대 달성”을 세 번째 지역 맞춤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목포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천사대교·케이볼가 개통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숙박·편의시설 부족으로 목포를 ‘거쳐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규모 해양리조트

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목포를 ‘체류형 관광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목포의 섬과 해안지역에 진도 솔비치 같은 대규모 리조트를 유치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재개발해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면 관광객이 목포에 머물게 될 것이다”면서 “김영록 지사·김종식 시장과 잘 협력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1,000만 목포관광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5·18학살 11공수 명칭 바꿔 재배치를”

민생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24일 5·18 진상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전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정예부대지만, 3·7·11공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공수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부대이름

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정권이 5·18 직후인 1982년 11공수를 담양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 그는 “이는 광주에서 또다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 공수부대를 재투입하겠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전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반성과 사죄 의미로 이 제라도 부대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코로나19 고통분담 위해 세비 기부”

민생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을 적극 환영한다”며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4개월간 급여 중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

라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나누기 위해 세비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에 기부하는 세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모두가 세비 기부 캠페인에 동참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 기자

4·15 총선 예비후보에 듣는다

정인화 무소속·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정인화 예비후보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의 정치·경제는 도약과 담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 지역민의 신임을 받고자 한다”며 4·15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4년 전 시·군민들께서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이 돼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당선시켜 주셨다”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4년 동안 시·군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제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거대 양당의 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에서 이 두 문제에 집중해 순천·광양·곡성·구례의 현안해결과 장기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 임기 중 2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



“지역발전 초석 놓고 국가번영 마중물 되겠다”

“4년간 국비 2조400억 확보”...여순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공약

민들과 정직하게 소통하며 소신을 갖고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로 “순천·광양·곡성·구례를 더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30년 행정 경험과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이 있다”면서 “예산확보 맥을 짚어 지난 4년간 지역발전에 필요한 2조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표공약으로 그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관련법 제정’과 ‘임대아파트 세입자 주거안정 관련법 개정’을 내세웠다.

정 예비후보는 “70년 넘게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많은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

로 활동했고, 4년간 각 부처와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 총 2조400억원을 확보해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 “1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식량생산과 직결되는 ‘양봉산업진흥법’,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고대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 등 2건을 포함한 44건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그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실재와 다른 부동산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많은 시·군민들께서는 ‘정인화가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더라도’라는 평가를 한다. 저는 벼랑 끝에선

농업을 구하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법안 운동’을 주도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면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4년 연속 헌정대상을 받아 300명 의원 중 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저는 제20대 총선 유세를 끝내면서 시·군민을 향해 길바닥에서 큰절을 올렸다. 그 사정을 제 사무실 책상에 두고 매일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하자는 다짐을 해왔다”면서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발전의 초석을 놓고 국가번영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ICT 쇼핑 플랫폼

골프장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제품을 큐빙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엑스페론이 만든 Vending Machine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43인치 디스플레이 광고를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자판기입니다.

엑스페론골프는 세계 최초의 특허 기술로 무개중심 밸런스 바로잡은 골프공을 생산/유통하는 골프용품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www.xperon.co.kr 문의 TEL. 02-2070-5009